

2007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의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 믿는이들

메시지 20

믿음—믿는이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유일한 길

성경: 롬1:5, 12, 17, 3:22, 4:12, 5:1-2, 10:9-10, 17, 12:3, 16:25-26

I.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알려진 것은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이다—롬16:25-26, 1:5.

- A. 이 신성한 비밀은 주로 두 방면으로 되어 있다.
 - 1. 하나님의 비밀은 믿는이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서 그들을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—골 2:2, 1:26-27.
 - 2.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분의 충만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이다—엡3:4-6, 1:22-23.
- B.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것이다.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믿을 때 믿음에 순종하게 된다—요3:18, 롬 1:5, 행 6:7.
- C. 완전한 복음은 믿음의 내용으로서, 하나님과 사람 모두이신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,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구속의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. 이러한 믿음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이방 종교와 철학에서 돌이켜 이 믿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—롬1:3-4, 살전1:8-9.

II.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—롬10:17.

- A. 말씀에는 세 방면—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,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말씀인 그리스도, 하나님의 적용되신 말씀인 그 영—이 있다—요10:35, 1:1, 6:63, 엡 6:17.
- B. 믿음은 기록된 성경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에 의해 적용된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. 이것이 믿음의 근원이다.
- C.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, 그리스도의 믿음이고, 그 영의 믿음이다 (롬3:22, 갈 2:16, 20. 3:22, 26). 그러므로 믿음은 체현되시고 실재화 되신 삼일 하나님의 믿음이다.

III.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나타났다—롬 1:17, 3:21-22, 30, 9:30, 10:4, 6.

- A.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화해 장소로 세우셨다—3:24-25.
- B. 의롭다 하심은 우리를 그분의 의의 표준에 따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— 28절, 5:1-2.
- C. 믿는이들의 믿음은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이다—3:22.
 - 1.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서 그들 속에 움직이시어 그들의 믿음이 되시며, 그러한 믿음에 의해 그들은 주 예수님을 믿는다—벧전1:2상, 행 16:31.
 - 2. 그러한 믿음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—롬10:9-10.
 - 3. 믿음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, 이 믿음이 우리를 무한하고 한없는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붓는다—3:22.

IV.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한다—12:3, 6.

- A.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의 합당한 질서를 무효화 한다—참조 고후10:12-13.
- B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할당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나누어 주셨다—벧후1:1, 롬12:3:
 - 1.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질에서는 동일하지만 양에서는 동일하지 않다—눅17:5-6, 고후10:15.
 - 2.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할당해 주신 다음, 양에 있어서 나누어 주셨다.
 - a. 우리가 가진 믿음의 종류는 하나님께서 할당하심에 달려 있다—마 17:20, 막 11:22-24.
 - b.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가졌는가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심에 달려 있다—행6:5, 11:24.
- C.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상호 믿음—'서로 안에 있는 믿음'—을 누린다.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나눠주신 믿음에 있다—롬1:12, 12:3, 6.

V.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한다—4:12

- A. 그리스도 안의 믿는이들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—갈 3:6-9.
1.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다. 그의 믿음의 삶은 현재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다—롬 4:12.
 2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방식이 그분이 모든 믿는이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다.
 3. 오늘의 교회 생활은 아브라함의 삶과 역사의 수확이다—13절, 12:5, 14:17.
- B.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—히11:8, 롬 4:1, 12, 갈 3:7.
1.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—히11:8.
 2.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.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속으로 옮겨 부여진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—행7:2.
- C.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—창15:6, 롬 4:2-3.
1.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안으로 옮겨 부으신 요소가 그의 속에서 분출된 것이다—3절.
 2. 아브라함이 믿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, 즉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다—창15:6.
- D.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,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살았다—히11:9, 창 12:7-8.
1. 그가 제단을 쌓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음을 증언한다—8절.
 2. 그가 장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준다.
 3.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상징하는 제단을 쌓아야 하고, 그런 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장막을 쳐야 한다.
- E. 아브라함은 사람의 수준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살았다—창 18.
- F.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한 가지 기본적인 공과를 배웠다—엡3:14-15, 4:6.
1.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그분을 근원으로, 유일한 창시자로 아는 것이고,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—마15:13, 14:19.
 2. 아브라함이 배워야 했던 기본적인 공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었다—요5:17, 19-20상, 30, 7:16-17, 8:28, 17:4.
 3.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—고전8:6상, 마16:17, 엡1:17, 골1:12.
- G.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으로 믿고 체험했다—롬 4:17-21.
- H. 아브라함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 다시 돌려받았을 때, 하나님을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체험했다—롬4:17, 히 11:17-19, 창22:1-19.
1.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—체험되고 표현된 생명나무—를 심고,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은밀하고 비밀한 분,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.
 2. 브엘세바에서의 삶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번제를 산출한다—22:1-2.
 3.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께 되돌려 드리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요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께 되돌려 드리라는 것이다—롬11:36.
 4.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그분께 드린 후에 그분은 그것을 부활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, 그것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축복이 될 것이다—창22:12-13, 16-18, 히 11:19.
- I. 외국인과 나그네인 아브라함은 "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,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다."—11:10.
1. 오늘 우리는 외국인들, 하늘에 속한 나그네들로서 우리의 영원한 목표—새 예루살렘—를 향해 험한 길을 여행하고 있다—벧전1:1, 17, 2:11.
 2. 아브라함의 장막은 궁극적인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축소형이었다—창12:8, 13:3, 히 11:9, 계 21:2-3.
 - a. 이기는 이들은 영원한 장막이자 참 장막절인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며 장막에서 산다—레 23:39-43.
 - b.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'장막' 안에 살면서 그 완결—기초가 있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—을 기다리고 있다—히11:10.